

쉬운 노력가의 자격요건.

사랑이 있으며 협조적인 그의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는 기쁘다. 사랑과 만나려는 소망이라는 두 가지 힘을 토대로 너희는 무체인 아버지와 미묘한 아버지를 너희들과 똑같이 물질세계에 있는 육신의 형태 안으로 불러오는 도구가 된다. 자녀인 너희들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굴레로 아버지를 묶는다. 지금도 대다수는 여전히 어머니들이다. 사랑의 굴레로 신을 묶는 신성한 활동으로 묘사되는 형상은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그를 어느 나무에 묶었느냐? 너희는 지난 사이클의 사랑과 헌신의 끈으로 무한한 칼파 나무에 그를 묶었고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 자녀들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밥다다는 너희가 그를 묶어놓은, 사랑과 헌신의 끈들을 가져다 그것으로 가슴의 옥좌의 자리로 만들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네로 돌려준다. 너희들 중에서 이 칼파 나무에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 그네를 계속 탄다. 너희들 모두 그네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각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지? 사랑과 헌신의 줄은 변함없이 강하지 않느냐? 너희는 동요되지 않을 테지? 그네는 너희가 그네를 타고 높이 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라도 동요가 생긴다면 그것은 너희가 저 위 높은 데서 떨어지게 만든다. 밥다다는 너희 모두에게 그네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끊임없이 그것을 타느냐? 어머니인 너희들은 그네를 타고 있으며 남들도 그네를 타게 만들고 있는 경험을 하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을 가진 것들에 대해 밥다다는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한 것들은 쉬우냐, 어려우냐?

오늘 여기에는 무슨 집회가 모여 있느냐? 너희들 모두 쉬운 요기들, 쉬운 노력가들, 쉬운 성취의 화신들이냐? 아니면 때로는 쉬운 요기들이고 때로는 어려운 요기들이냐? 쉬운 노력가가 된다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은 문제가 와도 날아다니는 단계로 그것을 단 1초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복한다는 것은 극복해야 할 뭔가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쉽게 극복하고 그것들을 넘어 날아다니느냐, 아니면 때로는 산 위에 착륙하고, 또 더러는 강에, 또 다른 때는 밀림 속에 착륙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또는, 나를 구해주세요! 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지? 어머니인 너희들은 똑같은 말을 거듭해서 늘 자꾸만 울부짖지는 않겠지? 신봉의 산스카르들은 이제 다 끝나지 않았느냐? 드로파디인 너희의 부르짖음이 끝났느냐, 아니면 너희가 여전히 울부짖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들이 되었다. 소리쳐 부르는 때는 이미 끝났다. 합류시대는 소리쳐 부르는 때가 아니라 성취하는 때다. 쉬운 노력가가 된다는 것은 만사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모든 성취를 쉽게 받는다는 뜻이다. 쉬운 노력가는 지금과 미래에 끊임없이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할 것이다. 보상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뭔가 물질적인 사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경험이라는 눈, 즉 신성한 제3안으로 지각을 통해 각자의 보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쉬운 노력가들은 매 발걸음마다 수백만보다도 더 큰 소득을 버는 경험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너희 자신이 모든 보물로 가득한 합류시대 영혼임을 끊임없이 경험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힘, 어떤 미덕, 지식의 어떤 요점의 보물, 행복이나 도취감이 없이 비는 경우가 결코 없을 것이다. 텅 비게 되는 것은 넘어지는 길이다. 구멍이 하나 만들어지고 너희는 그 구멍 속에 빠진다. 발목뼈를 조금이라도 빼면 괴로워진다. 이것은 지각을 접지르는 일이며, 생각이 뒤틀린다. 강력하고 모든 힘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약하고 비게 된다. 것처럼 그것은 너희 생각을 빼는 일이다. 너희는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길이 꼬였다고 얘기한다. 그것은 너희가 뒤틀렸던 것이 아니냐? 흰 길은 바로 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힘의 화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비틀어진 것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이 강당 아래 땅이 원래는 평평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수평으로 평평하게 골랐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강당을 지은 업자에게 그가 한 번이라도 울퉁불퉁한 것을 모두 다 수평으로 평평하게 고를 수 있을지 여부를, 혹은 발목을 접지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라. 그는 모든 것을 다 수평으로 평평하게 골랐느냐, 아니면 그는 모든 게 얼마나 울퉁불퉁했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했느냐? 때로 그는 다이내마이트를 터뜨려서 바위 돌을 깨야 했고 때로는 돌맹이들을 집어넣어 구멍을 메워야 했다. 그는 그 노력을 해야 했다. 너희들 모두 천국을 만드는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수평으로 고르는 계약을 했다. 그런 계약을 맺는 자들은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갑자기 넘어지는 것은 주의가 부족한 탓이다. 사카르 시절에 누가 넘어지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 자녀에게는 톨리를 주는 일을 중단하곤 했다. 어째서냐? 그 자녀가 미래에는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톨리 하나 주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톨리는 어차피 너희 자녀들을 위해 만든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랑의 한 형태였다. 톨리를 주는 것은 사랑의 징표이며 그런 톨리를 주기를 중단하는 것도 역시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럴 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갑자기 넘어졌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길이 울퉁불퉁했다고 얘기하겠느냐? 노력의 이 길 위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여태껏 90만 명의 백성들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겨우 10만 명을 만들고는 행복해한다. (1983년 브라민들의 수는 10만 명, 2001년에는 60만 명, 2017년에는 거의 백만 명의 브라민이 있다.)

노력의 길은 무한한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누가 쉬운 노력가라고 불리는지 이해하느냐? 발목뼈를 빠지 않고 남들을 위한 안내자가 되는 자는 그들이 건너 쪽으로 쉽게 건너가도록 돕는다. 쉬운 노력가는 단지 사랑을 가질 뿐 아니라 사랑 속에 잠겨 있다. 사랑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영혼들은 어디서든 파동과 분위기로부터 쉽게 멀찍이 떨어져 머무는데, 왜냐하면 사랑에 잠겨 있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강력하고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머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등해지는 것이 전체에서 최고로 큰 금고다. “마야를 방지하는 것”은 금고다. 이처럼 너희는 쉬운 노력이 뭔지 이해하느냐? 쉬운 노력이란 부주의함이 없다는 뜻이다. 부주의함을 쉬운 노력이라 여기며 움직이는 자들이 일부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보물로 가득하지 못하다. 부주의한 노력가인 자들의 주된 특성은 걸으로는 노래 부르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계속 그들을 찌를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무엇을 노래 부르고 있겠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칭송하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쉬운 노력가들은 변함없이 아버지의 동반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쉬운 노력가들이냐? 쉬운 노력가는 한결같이 쉬운 요기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훨씬 더 선호하느냐? 쉬운 노력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노력가가 되는 것이냐? 너희는 쉬운 노력을 더 선호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고 있는데 어째서 너희는 그것을 받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말이 아니다. 뭔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르게 행동한다면, 너희가 쉬브 삭티라고 불리겠느냐?

쉬브 삭티가 된다는 것은 의존하는 자가 아닌,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런 것은 브라민의 언어에 있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은 브라민인 너희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느냐? 합류시대, 즉 쉬운 성취의 시대의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이제는 시간이 오직 약간만 남았다. 그것에서도 너희는 때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얻음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쉬운 노력가로 만들 수 있다. 브라민이라는 말의 정의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브라민들의 종교이며 행위다. 브라민으로 태어나 행동하는 브라민이라는 것은 쉬운 요기이며 쉬운 노력가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무엇으로서 돌아가려느냐?

마두반은 변화의 땅이라고 불린다. 너희가 돌아가기 전에 이 타파샤의 땅에서 “어렵다”는 말을 태워버리고, 쉬운 노력의 축복을 갖고 돌아가라. 변화라는 그릇 (힘)을, 즉 결단력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들을 훈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중 일부는 바바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었지만 그것을 아부에 놔두고 왔다고 얘기할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너희는 축복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축복의 공여자에게 축복 받을 가치가 있는 자로서 축복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디에 남아 있겠느냐? 그 축복들을 준 분에게 남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매우 영리해졌다. 너희들은 제 잘못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는, 바바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다. 너희는 제 자신의 나약함을 모두 아버지 탓으로 돌린다. “바바가 원하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는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공여자냐, 아니면 그가 너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느냐? 공여자는 항상 주지만, 가져갈 자들이 가져가야 한다! 아니면 아버지가 주고 그가 또 가져가기도 해야 하겠느냐? 만일 아버지가 가져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충만해지겠느냐? 그러므로 최소한 받는 법만은 배워라. 앗차. 너희들은 이제 만남을 갖지 않았느냐? 바바는 모든 이를 즐겁고 재미나게 해줬고 그는 모든 이의 얼굴도 역시 봤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 모두의 얼굴은 아주 명랑하다. 너희들 모두 행복의 그네를 타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만남을 축하하는 것 아니냐? 만난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았지? 너희는 축복과 더불어 그것을 담은 그릇 (힘)도 역시 받았다. 그 외에 무엇이 더 있느냐? 너희는 디디와 다디에게서 이미 톨리를 받았다. 육신의 형태를 도구로 만들었거늘 너희들은 어째서 아비약트 형태를 육신의 형태로 만드느냐? 디디와 다디도 역시 아버지와 대등하다. 너희들이 어디서 디디와 다디에게 톨리를 받든, 그것을 받을 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밥다다가 너희에게 톨리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톨리를 받으면서 만일 너희가 디디나 다디가 그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이다. 앗차,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톨리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 톨리를 받는다면 너희가 최소한 바바 앞에 가리라고 너희는 느낀다. 그러니 오늘 줄을 서서 각자 톨리를 받아라. 너희 마음을 계속 가득히 채워라.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득하게 만들되, 꼭 차게 하지는 마라. 작은 한 부분은 비어 있게 하는 게 좋다. 너희가 바바를 기억하고 계속 너희 자신을 채우는 것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 뿐일 것이다. 너희가 만일 꼭 찬다면 너희는 배가 부르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마시고 자비로워져라! 앗차.

한결같이 쉬운 요기인 자들 모두에게, 쉬운 노력가들에게, 남들의 어려움을 쉽게 만드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한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들에게, 끊임없이 모든 보물로 가득한 자들에게, 모든 보물들로 세계뿐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어머니들의 그룹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끊임없이 지난 사이클의 너희들의 사진을 늘 보고 있느냐? 어떤 그림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봉사도 묘사하느냐? 고베르단 산을 쳐들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양쪽 모두 봉사하고 있다. 너희들의 손가락을 보태는 것이 곧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마음에 열의를 느끼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의 협조에 대한 기념물이 만들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느냐? 손가락은 협조를 상징하는 징표다. 너희들 모두 밥다다에게 협조하고 있을 테지? 너희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협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협조하는 영혼들이었다는 것을 한결같이 의식하며 지내라.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 마음, 부를 신봉에 썼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든 너희는 아버지에게 협조함으로써 그것을 참된 봉사에 사용한다.

너희들은 이미 99%를 허비했고 이제는 겨우 1%만 남았다. 바바에게 협조하는 데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황금시대 왕이었고 오늘날에는 너희가 어떠한지 보라! 너희는 심지어 몸에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에는 젊은이들도 늙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더 나이든 이들만큼 일을 할 수 없고, 그저 이름만 청년이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의 부마저 잃었다. 신인이었던 너희는 장사를 업으로 삼는 상인이 되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마음의 평화마저 없다! 너희는 끊임없이 배회하며 돌아다닌다! 이처럼 너희는 마음의 평화, 너희의 몸, 마음, 부를 잃었다. 그러니 다른 뭐가 있느냐? 그렇긴 하되 아직껏 남아있는 1%의 몸, 마음, 부를 신을 위한 봉사에 쏟으로써 그것이 21생, 즉 2,500년 동안 축적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그렇게 협조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과 협조를 준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너희는 이 협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너희는 지금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고 또 너희들의 모습도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너희들은 지난 사이클의 너희들 모습을 살아있는 형태로 보고 있다. 전에는 너희들이 제 스스로의 형상을 숭배했었다. 만일 너희가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해 알았더라면 너희는 그들에 대한 찬양을 노래로만 부르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모두 이런 식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과제에 협조하겠다는 순수한 생각을 한결같이 가져라. 모든 종류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데 변함없이 협조해라. 분위기에 격변이 생기도록 허용하지 마라. 때로는 협조하지 않고 격변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는 마라. 변함없이 협조적으로 머물러라, 즉 한결같이 충족된 상태로 머물러라. 한 아버지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 나아가고 이를 의식하며 날아다녀라. 뭔가 생각날 때마다 저 위쪽을 올려다보고 태평해져서 계속 나아가라.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보태고 신호해주는 것은 뭔가 격변에 붙들려 있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안정되어서 한결같이 지내라. 너희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엔 아무 생각도 없게 해라. 끊임없이 자아발전과 봉사를 확장시키느라 늘 바쁘게 지내고 모든 이에 대해 좋은 염원을 가져라. 너희가 생각으로 가진 좋은 염원은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실현시키는 길은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를 가지는 것이다. 너희 자신과 남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모든 면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강력하고 고결한 영혼들의 과업은 어디서나 강력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앗차.

Blessing: 아비약트의 강력한 부양으로 빨리 가고 비록 너희가 늦게 왔더라도 1등에 대한 권리를 차지해라.
아비약트의 역할에 들어온 영혼들은 그들의 노력에서 빨리 가는 쉬운 행운을 가졌다. 이 아비약트의 부양은 쉽게 너희를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하는 만큼 한껏 전진할 수 있다. 지금 이때에는 “비록 너희가 맨 마지막에 왔지만 빨리 가고, 빨리 감으로써 첫째로 오는” 축복을 받은 시대다. 그러니 이 축복을 사용해라, 즉 때에 따라 이 축복을 사용해라. 너희가 받은 것은 뭐든 써라, 그러면 1등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것이다.

Slogan: 자아존중의 자리에 안정해서 앉아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모든 이에게 존중받을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